

해외에서 일하며 느낀 것들
- 그리고 취업 이야기 -

김학현

limbaldhyun@gmail.com

소개

현) Unity Senior Developer Support Engineer

전) Varjo Unreal Developer(핀란드)

전) 넥슨 프로그래머

전) Havok Developer Support Manager(독일+한국지사)

시작 하기 전에

-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더라:
어디에나 장단점이
- 무엇을 얻을 것인가? 힘들어도 얼마나
버틸래?
- 점점 면접 방식이나 해외 적응 방식
등이 변화

오늘
알아가기면
좋은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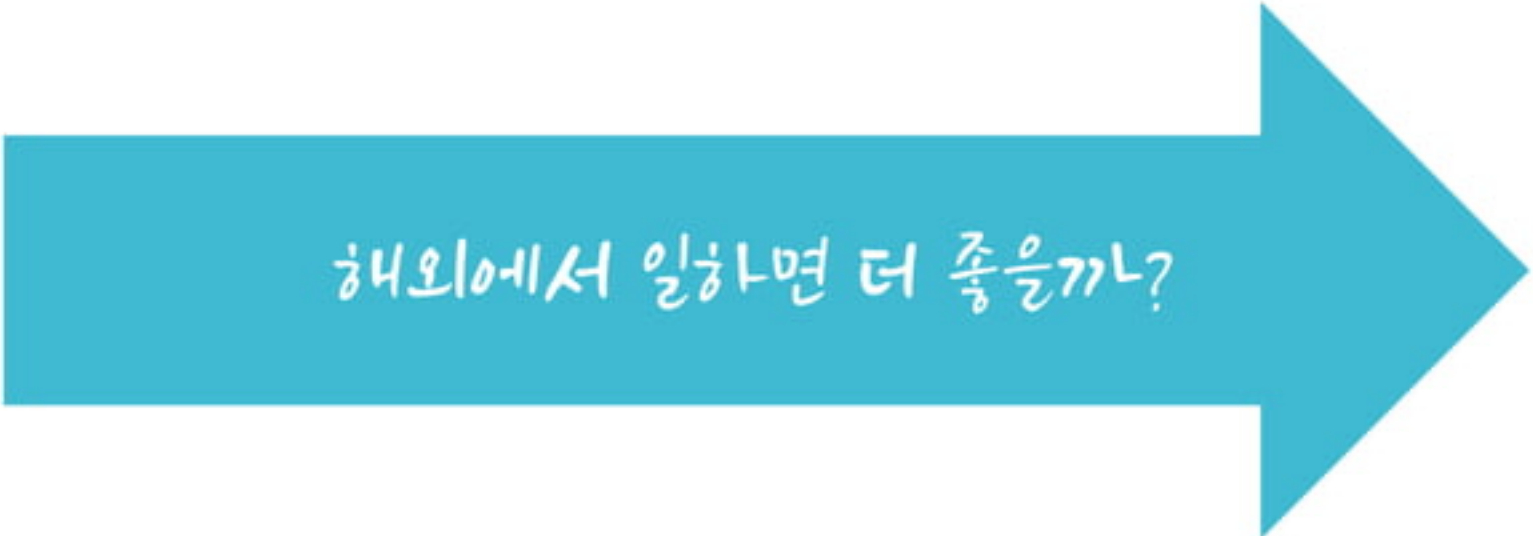
- 해외에서 일하려면 어떻게?
-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?
- 언제 가면 좋을까?

개요

해외에서 일하면 더 좋을까?

해외 취업 어떻게 준비할까?

해외 취업 한번쯤은?



해외에서 일하면 더 좋은가?

스타트업 회사,
다른 경험들



국내



해외

입사 시험 - 국내

일정 형식의 이력서 제출

기술 대면 면접

인사팀 면접

임원 면접

입사 시험 - 독일

자유 형식 이력서

전화 면접(30분~60분)
- 이력 및 기술 사항 확인

온라인 또는 과제 제출형 코딩 시험
- 게임회사 - 집에서 이를 내내 코딩
- 유명 웹서비스 회사 - 구글독스/collabedit 를 이용하여 코딩 시험

면접
- 코딩 시험 내용 확인
- 질문은 한국과도 비슷
(예: 어떤 후에는? 회사를 나온 이유는?)

674월 후 -
국내

열정으로 달림

야근

스트레스

야근과 스트레스에 약한
저는 버그 양산을 시작

1년 후 - 독일

일은 우선순위와 시간에
따라 자동
할당(Hamsoft/Jira)

하루에 5시간 딱 일할 분량
(어떻게?...)

Continuous Integration
나에게 맡을 거는 CI

휴가는 최소 1주일씩
(왜 하루만 휴가 신청 했어?)

무엇이
달라졌을까?

코드 리뷰

회의 X

시스템

휴가

근태 X

코드 리뷰 받기

남에게 코드를 보여준다는 것의 의미

보여주기 전에 재검

보여주며 재검

연대 책임

여러 번
생각

버그를
빨리
잡는다

의외로
나오는
버그들

안 보이던
버그

코드 리뷰 하기

남의 코드를 본다는 것

코드를 읽는다

다른 사람 코드
버그 잡기

연대 책임

같이
생각

버그를
빨리
잡는다

나오는
버그들

위대한
플랫폼도 버그
생성

코드
리뷰에서
보는 것

- 가독성
- 논리 버그 체크
- 수정 로그
- 테스트 작성

회의가 없다

하루 8시간 풀코딩

나머지 시간은 휴식!

팀 사람과는 주로 코드리뷰를 통해
대화

CI 의 의미

- 시스템이 맞을 건다
- 빌드
- 워닝
- 유닛 테스트
- 기타 등등 테스트

휴가의 의미

- ☐ 눈치 보며 하루 쉴더니 이상하다고 1주일씩 유럽 회사들은 3-4주씩?
- ☐ 휴가나 업무 시간 이후에 연락이 없다. 회사 밖을 벗어나면 업무에 연루 시키지 않는다.
- ☐ 충전 충전 충전
- ☐ 백발의 프로그래머
- ☐ 코드에는 주인이 없다?

백발 프로그래머

- ☐ 5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일한 분들이 많음.
=> 회사에서 핵심!
- ☐ 일한 시간이 길어 지니 다양한 예측(프로그래밍
완성 시간 등)이 가능하더라
- ☐ 무리하지 않은 일정과 적절한 휴식
- ☐ 회사에서도 장기적으로 인재 투자 가능
- ☐ 팀장도 이사도 창립자도 코드 이상하다고 인턴
님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. - 나이 들어도
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구조

근태

- ☐ 누구도 근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.
- ☐ 일정이 중요
언제까지지 가능함? 언제까지지 할래?
- ☐ 사소한 매니징이 없고 신뢰가 높은 환경의
업무효과
- ☐ 하지만 하루 8시간 '모두'가 바쁘다.

컨텍스트
스위칭을
줄여라

- 아침에 컵이 모두 닦여 있는 이유는?
- 휴게실에서 개발자간 대화할 수 있도록
- 1:1 미팅이 필요한 이유는?
- 내가 회사 컴퓨터에 윈도우를 직접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는?

재택 근무

- 해외 개발자들은 이미 익숙 / 한국도 급격히 늘어남
- 상황에 따라 장단기 재택근무
한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바탕
- 좋은 시스템 / 좋은 매니저
- 집에도 이제 일할 곳이 필요하다
언제 일을 내려 놓고 쉴 지 정하는 것이 중요

업무가 끝나고

- 업무가 끝나고 조용히 집에서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?
- 정말 우리는 회사에서만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만 프로그래밍 하는가?
- 집에서 푹 쉬고, 고민하고 온 다음 날 코딩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.

정리

- 큰 차이 보다는 여러 사소한 차이들
- 열정과 삶의 조화 — 마라톤처럼!
- 백발의 프로그래머를 꿈꾸기.



해외 이주 이야기

해외 이주
이야기:
비자

- 비자는 많은 서류가 필요
나라 별로 다른 비자 방식
- 유럽: 회사를 나와도 어느 정도
머무르며 새 직장 구하기 가능
또한 배우자도 취업 가능
- 싱가포르/영국: 회사 그만두면
바로 한국 돌아와야 할 수도

해외 이주 이야기: 워홀

- 요즘은 워홀로 비자 얻고 일단 가는
분들이 많음
- 회사 입장에서 외국인 비자 비용
+ Relocation 대기 시간 등이 부담
→ 워홀은 바로 가능
- 특히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
큰 효과

해외 이주

이야기:

Relocation

- 해외 취업의 경우
Relocation Bonus 지급
- 이사 때 짐은 얼마나?

해외 이주 이야기

- 우리는 생각보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?
- 핀란드에서 많이 듣던 말:
내가 이렇게 날씨에 민감한지 몰랐던???
-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?

해외 이주
이야기:
심심함이 적

- 문화도 생각도 달라서 심심할 수 있음
- 해당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추천
많은 외국인 친구
나라 문화 이해 + 즐거움

혼자 VS 가족과 함께

- 처음 이주는 혼자: 심심함, 다만 회사 사람들과 좀 더 많이 어울리고 언어 습득 가능
- 최근 이주는 가족과 함께: 심심할 겨를이 없다.
가족 비자 갱신 부터 학교 등등등
- 그래도 혼자 가는게 부담이 적고, 돌아올 때도 편함,
일찍 도전을 권장



한국에서 해외로 취업 이야기

해외 취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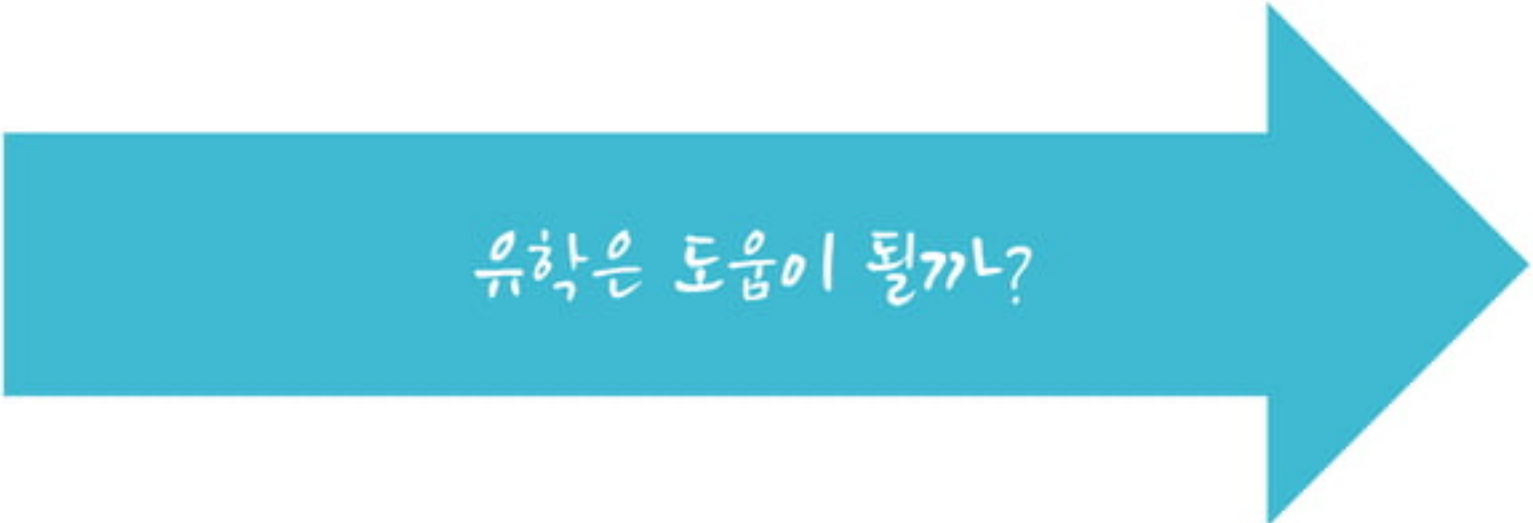
- 영문이력서 및 링크드인 !!
전화 영어 인터뷰는 어려움 - 전화 영어?
- 코딩 시험
깔끔한 코드와 완성도를 보는 편
귀찮더라도 주어진 시간내내 꼼꼼히 프로그래밍
- <http://codility.com/> - 이런 것도 있습니다.
- Udacity, edX, Coursera 등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해외 취업

- ☐ Github 등의 오픈 소스 활동 중요 - 작은 거라도 올려보자
- ☐ Stackoverflow 나 Quora 등의 소셜 활동이 있으면 좋음.
- ☐ Coursera, edX, Udacity 등에서 프로그래밍 certification 등도 주니어 프로그래머 취업에게는 좋은 포인트

취업 과정

-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.
- 비자까지 3달 이상은 기본
- 1주일 정도 연락이 없으면 연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
- 의외로 잘 잊더군요!
- 이력서 교정도 꼼꼼히
- Smile 과 Eye contact 그리고 자신감 있고
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플러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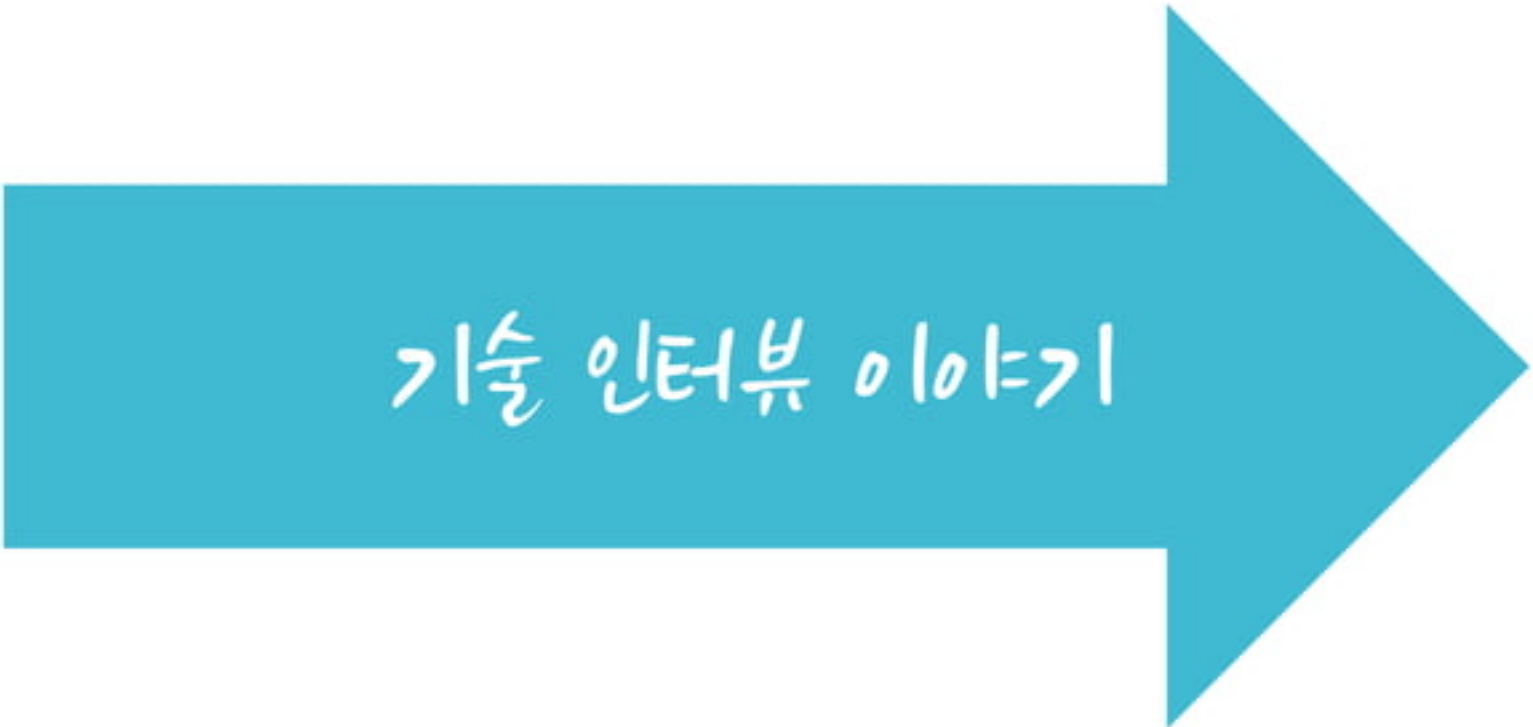
유학은 도움이 될까?

해외 취업의 어려움과 유학

- ☐ 사실 한국에서 바로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.
언어 장벽 / 인터뷰 질문 장벽 / 거리 장벽
- ☐ 최근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유학 후 좋은 회사에
취업하신 개발자 분들이 많습니다.
- ☐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서 추후에
선택하기는 힘듭니다.

유학 후 취업은 분들을 보면

- ☐ 인맥등으로 좀 더 잘 취업하는 편
예) 핀란드 같은 경우, 일단 온 뒤에 취업하는 분들이 많음
- ☐ 회사 취업 후에도 현지 친구 등이 많아 잘 적응
- ☐ 유럽은 석사의 경우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함



기술 인터뷰 이야기

크게 보면

- 알고리즘 시험 형태 - 외부 코딩 시험 이용
빠르게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형태
- 알고리즘 인터뷰 형태 - 알고리즘 문제를 면접관과 함께 풀기
- 실무 문제
바로 실무 문제를 들고 와서 검증
- 과제 형태
몇 일간의 과제를 내주고 인터뷰를 통해 검증

알고리즘 공부하기

- ☐ 코세라 알고리즘 강좌
- ☐ 탐코더 대회 참가
- ☐ 커리어컵 문제 풀기

게임 회사와 알고리즘

- ☐ 대부분 과제를 내주고 함께 토론
- ☐ 또는 실제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과정

영어는?

- 같은 지원자면 당연히 영어 잘 하는 쪽으로
-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인터뷰 하면서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좋음
-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회사라면 영어는 와서 빨리 늘거라고 기대하는 경향

영어 인터뷰 과정

자기 소개: 편하게 하지만 커리어 중심으로 내가 왜 그 회사에
필요할까? 나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?

대화: 포장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터 놓고 얘기해보자

연봉협상: 돈은 중요하다! 인터뷰 대상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
터놓고 얘기하기

RSU, Stock option 등의 내용 숙지



돈 이야기

cost of living
salary after tax

생활비

cost of
living

- 검색해보자, 그래도 확실히 모름.
가보거나 지인이 있어야 제대로 계산 가능
- 집세는 중요하다 -> HK 의 도움을 받자
- 일반적으로 집 월세 * 3 = 세후 소득 미니엄

세후 소득 따져보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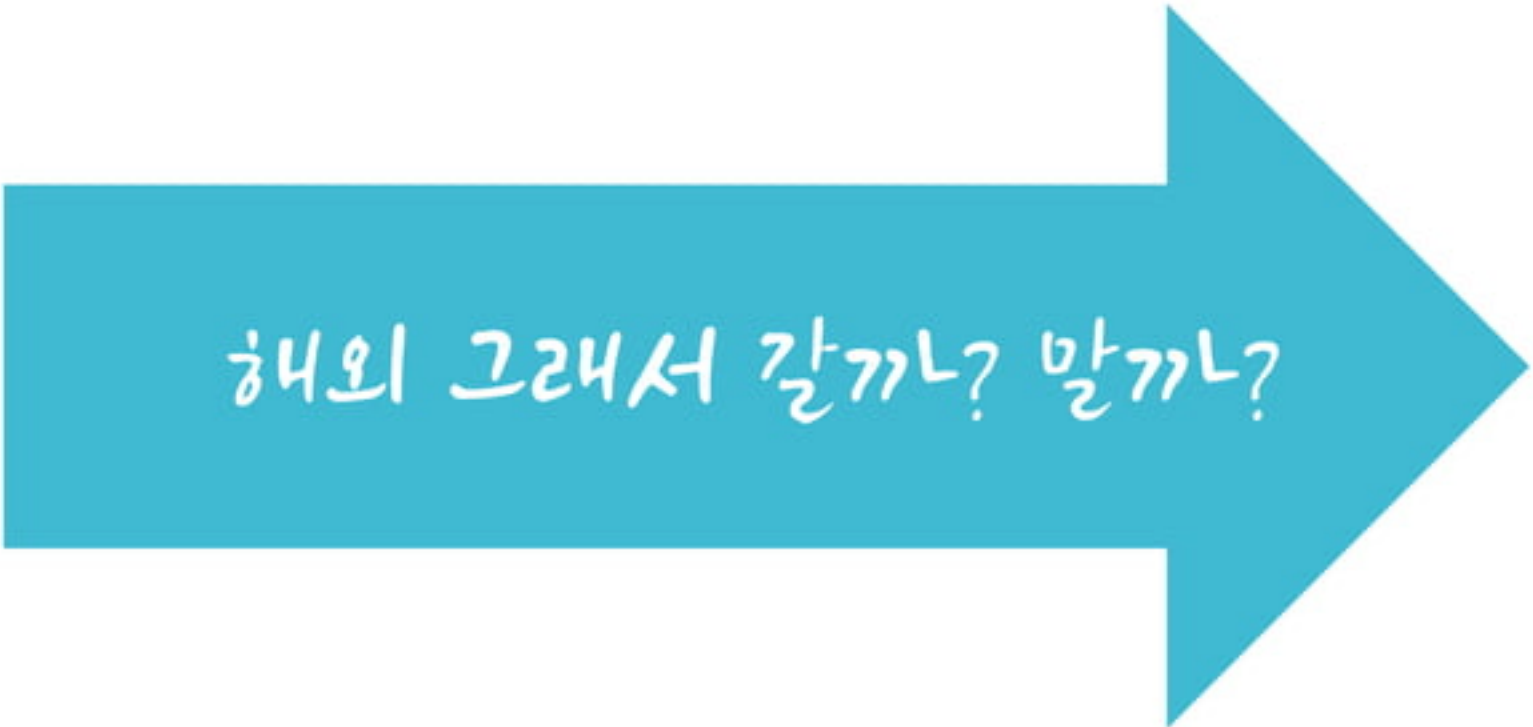
예시: 핀란드, 싱가포르, 한국

특히 RSU 나 Stock option 의 경우 나라별로 정말 다름: 싱가포르 VS 한국?

연봉

salary

after tax



해와 그래서 같을까? 말을까?

가기 좋은
때는 존재
(하지만
가려면
언제든지)

- 위홀, 유학 등 비자 + 공부 가능할 때
-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 : 오고 가는 게 훨씬 쉬움
-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 독립적으로 일이 가능해지는 시점

다양한 문화 경험

- ☐ 난 어떤 상황에서 잘할까?
- ☐ 난 어떤 날씨에서 잘할까?
- ☐ 어떤 회사에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?
- ☐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더 좋다면 해외는 어떨까?

다녀오고 나서

- 좀 더 다양하게 언제든지 구직활동 가능
- 해외 포함?
- 다양한 커리어 인정 방식
- 나이 걱정이 좀 덜 해짐

QA